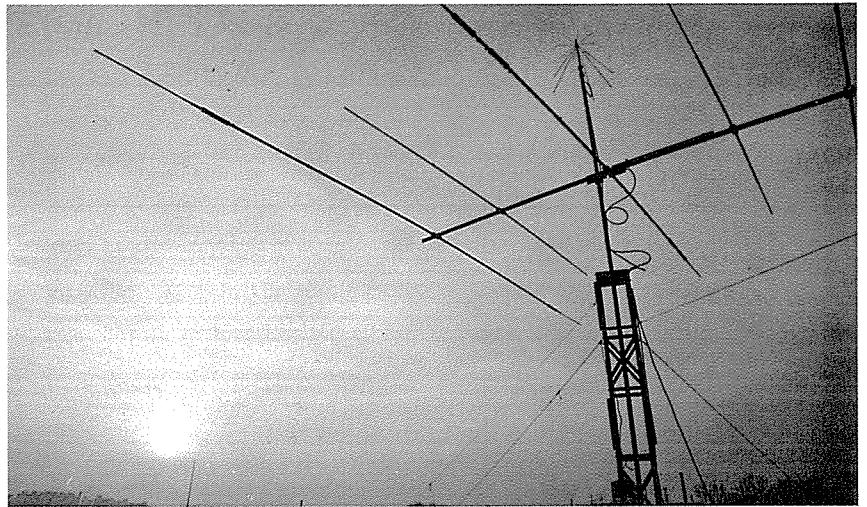


▲무선전파가 전세계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커다란 안테나가 필요하다. 사진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본부에 설치된 안테나



김 일 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사무총장)

HAM세계로의 초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취미로 무전기를 가지고 동호인과 교신을 하는데 국가기술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추어무선(일명 HAM)은 아마추어용 무전기를 가지고, 국가에서 인증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만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같은 취미를 가진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과도 자유롭게 무선으로 통신하는 것을 말한다.

이사장에 이증근교수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성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55년 4월에 아마추어 무선인들이 단체를 만들어 정보통신부(전 체신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아 회원의 권익과 정당한 아마추어무선의 보급을 위하여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이곳이 바로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KARL)이다.

금년으로 창립 40주년을 맞는 연맹은 본부를 비롯하여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에 12개의 지부와 그 밑에 수십개의 지

역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94년말 현재 1만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다.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인 이증근(HL1AQQ)박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여섯명의 부이사장, 15명의 이사, 그리고 2명의 감사로 임원진이 짜여져 있다.

또 연맹은 KARL이라는 연맹기관지를 1만여부 발행하여 회원과 유관기관은 물론 해외의 행단체에게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회원명단을 실은 'CALL-BOOK'도 1년에 한번씩 발행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외로 발송되는 QSL CARD(상호교신 확인증)의 무료중계, 아마추어무선사 및 회원배가를 위한 각종교육 및 홍보활동, 본부 및 각 지부 주최로 매년 1~2회 만남의 장(Field day)을 개최하고 있다.

아마추어무선의 재미는 무전기의 마이크를 잡으면서 시작된다. 얼굴도 모르는 국내 또는 외국인과 무선전파를 통하여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일

올해로 창립 40돌을 맞는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은 전국에 1만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회원들의 권익과 아마추어무선 보급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지만 교신이 끝난 후 며칠이나 몇달 후에 받게되는 그들이 보낸 QSL카드를 받고 이를 모으는 것도 또 다른 취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QSL카드는 교신을 서로 확인하는 증명서이지만 자기 나름대로 디자인하여 만드는 명함이나 카드가 될 수도 있고, 외국으로 보낼 때는 한국의 특색을 보여주는 홍보용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전세계 3백여만명의 아마추어무선사들에게 한국을 소개시키는 아마추어무선사들을 우리는 민간외교관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집안에 편히 앉아서 전세계 방방곡곡을 드나드는 외에 아마추어무선의 또 다른 재미는 무전기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데 있다. 산위에서 또는 차 안에서 무선전파를 통해 산행정보를, 교통정보를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으며 그동안 교신으로만 만나왔던 미지의 친구를 직접 만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으로 나갈 경우라든가 교신을 했던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아마추어는 우호적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국가재난때 등 크게 활약

아마추어무선은 말로만 하는 취미는 아니다. 한적한 숲속이나 들뜰같은 곳에 여러 대의 전파발신기를 감춰 놓고 수신기와 안테나, 지도를 갖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일정한 시간안에 많은 발신기를 찾아내며 강한 체력을 요구하는 「전파방향탐지(ARDF : Amateur Radio Direction Find-

ing)대회」가 매년 국내외에서 개최되어 많은 아마추어무선사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파방향탐지대회는 점차 레저쪽으로 개발이 되어 일반인들도 즐길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이다.

이외에도 아마추어무선은 컴퓨터를 이용한 Packet통신,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통신, 화상을 주고 받으며 교신하는 A-TV나 SSTV 통신, 텔레타이프나 FAX 통신 등 통신의 첨단을 견고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King of Hobby'가 바로 아마추어무선인 것이다. 아마추어무선은 개인적인 취미이지만 국가나 사회봉사에 일익을 담당한다. 국가 재난이나 비상시에 아마추어무선사들의 활약상은 더욱 빛이 난다.

시급을 요하는 위급환자에게 투여할



▲집안에 무전기를 설치하여 세계여행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마추어무선의 묘미이다.

약품을 미국과 일본의 아마추어무선사를 통해서 공수한 것이나, 마니슬루 등반대의 조난소식, 87년 7월 논산 강경에서 홍수로 인한 제방이 터져 황산벌이 물바다가 되었을 때의 재난구조활동, 93년 7월26일 해남 마천부락에 추락한 아시아나항공기의 생존자 구조활동 등 국내외적으로 눈물겹던 구조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이 많이 있다.

한편으로는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선수촌과 주경기장에 특별아마추어무선국을 설치하여 24시간 무선국을 운용, 경기대회 홍보 및 선수단과 고국의 가족을 무선으로 연결, 서로의 안부를 전하게 하는 등 많은 일들을 하였다.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은 외국이나 한국의 아마추어무선사가 상대의 나라를 방문할 때에도 그 나라에서 아마추어무선을 즐길 수 있도록 제외국과 상호운용협정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은 지난 88년 10월 제7차 국제아마추어무선연합 제3지역(IARU Reg.3) 총회를 유치하여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정부당국과 협의하에 추진중에 있다.

일본과는 93년부터 아마추어무선 상호협정이 이루어져 양국간의 협력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상호교신을 하게 되었고 전세계 무선방향탐지 경기 대회에 우리나라 무선사들이 수회 참가하여 수상한 경력도 있으며 역대 이사장이었으며 현 명예이사장인 박영순(HL1IFM)씨는 국제아마추어무선연합 제3지역의 이사에 피선되기도 했다.

92년 7월부터는 무전기를 가지고 다니든, 차량에 설치하든 규제없이 이동이 자유롭게 되면서 요트나 경비행기 등에 햄무전기 설치가 유행하고 있다.

자격시험, 1년에 6차례

또한 아마추어무선을 즐겨보겠다는 희망자들이 구름떼같이 모이고 있어 연맹이나 지부에서는 이들에게 면허증을 손쉽게 주선해주고자 2주 동안 30시간의 강의를 받은 이수자에게 과목 면제 강습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3급 아마추어무선자격만 가져도 출력 50와트 무전기로 세계와 교신이 가능하며 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파법규, 통신보안, 무선기기 취급방법의 세가지 과목을 응시하여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으나 본 연맹이나 지부에서 실시하는 강습 수료자에게는 무선기기 취급방법의 과목면제 혜택이 있다.

이 자격을 따기 위한 시험시기도 95년에는 여섯번의 기회가 있으므로 관심있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기를 바란다.

95년 4월 연맹창립 40주년을 앞두고 외국 무선단체의 초청, 바자회, 야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정보통신부에서는 기념엽서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복 50주년과 창립 40주년을 기리는 특별 CALL-SIGN을 배정받아 전세계에 홍보할 예정으로 있다.

국위를 선양하고 민간외교관으로서 한몫을 다함은 물론 개인으로도 유익

한 취미이며 위급시 비상통신 수단으로 손색이 없는 아마추어무선의 세계에 관심있는 과학기술인들을 초대하고자 한다.

연락처는 서울 중앙우체국사서함 162호, 전화문의 817-7493, 팩스 817-7494 ☎

〈중앙본부와 각 지부 연락처〉

- 중앙본부 : (02) 817-7493
- 서울지부 : (02) 822-5933
- 경기지부 : (0331) 39-5973
- 인천지부 : (032) 772-8760
- 강원지부 : (0391) 648-4393
- 대전·충청지부 : (042) 226-5959
- 광주지부 : (062) 369-5973
- 전북지부 : (0652) 241-6146
- 전남지부 : (0662) 652-7000
- 제주지부 : (064) 42-9498
- 부산·경남지부 : (051) 741-7388
- 대구·경북지부 : (053) 941-5359
- 울산지부 : (0522) 65-5973

현재 사용중인 공항의 활주로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발사하여 착륙시키는 단단식의 유익재사용형 로켓 공기를 이용하는 엔진을 채용하면 대기권을 항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의 이동이 자유롭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1986년부터 영국의 BNSC(British National Space Center: 영국국립우주센터) 및 기업이 '헤르메스(Hermes) 스페이스 플레인'의 후속기라는 양해아래 21세기초에 처녀비행할 것을 목표로 개념연구중이었던

수평이착륙형 스페이스플레인/호틀 (HOTOL: Horizontal Take-off and Landing)

으나 1988년경부터 추진속도가 늦춰지고 있다.

당초에는 무인으로 비행하기로 했으나 그 뒤 유인화로 바뀌었다. 1988년 7월 영국의 대처수상이 호틀은 민간주체로 국제협력으로 추진할 뜻을 밝혀 영국기업계의 불만을 사던 중에

1990년 9월의 판보로에어쇼에서 영국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사는 구 소련의 6발제트 초대형수송기 안트노프 An-225위에 잠정호틀을 탑재하는 반년간의 공동연구를 러시아의 중앙유체역학연구소와 계약했다.

그 뒤 1991년6월 동사는 이 공동연구의 결과 신 호틀/안트노프 An-225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중량 약 250톤, 페이로드 약 7톤, 개발비 약 25억달러, 첫비행 2005년, 고도 약 1만m의 공중에서 엔진을 시동하여 낮은 궤도에 투입된다.